

“종교개혁의 칭의론은 성화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가?”

마틴 루터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를 동시에 새롭게 하여 선행의 열매를 산출한다고 역설하였다. 루터에 따르면, 칭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의로움(성화)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낯선 의로움에 근거한다. 믿음은 ‘우리 밖의 의로움’을 붙잡는 손인 동시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내주게 하는 채널이다. 그러므로 칭의와 그리스도와 연합은 동시적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내주하며 일하시기에 **믿음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산출한다**. 이같이 루터가 믿음의 열매로서 갱신과 선행을 강조했지만 **칭의만큼 성화에도 역점을 둔 구원론을 온전히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칼빈은 비록 칭의가 종교개혁의 주요점이며 핵심 교리이지만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참된 경건의 바탕이며 출발점으로 보았다. **칼빈의 실제적 관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었다**.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열망이 그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칼빈이 그토록 칭의론을 중요시 여긴 것은 그 교리만이 진정한 경건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고 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의 근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칼빈의 칭의론에서 성화 없는 구원이라는 사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칭의론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수반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리라는 점이 누구에 강조되었다. 그 사실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을 다룸에서 역역이 드러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끈간으로 하여 구원론을 전개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지는 두 혜택은 칭의와 성화이다. **칭의와 성화는 결**

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곧 단일하면서도 이중적인 은혜이다(One grace yet two-fold grace).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에서 뿐이지 우리의 경험에서는 아니다.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성화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는 동시에 반드시 거룩해 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무도 칭의와 성화 둘 중 하나만을 체험할 수 없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만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 회개와 성화를 동반함 없이 칭의의 효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은 행함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이 참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칭의 뿐 아니라 성화까지 취하게 된다.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신앙생활 전 과정에 걸쳐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화 없는 칭의’만 경험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로만 구원 받을 수도 없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화(중생)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칼빈은 자주 엡 2:8절과 딤후 2:11-14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했다. 칭의의 은혜는 이 뜻과 조화를 이루며 그 열매가 순종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순종의 삶에서**

은혜와 율법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은혜의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율법의 제 삼 용법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 즐거이 따르는 단 마음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하는 믿음은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산출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채널이다. 칼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순종의 열매뿐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이다. 이 땅에서 신자의 순종은 불완전하고 흠이 많기에 항상 회개가 필요하다. 그는 믿음에 바로 이어 회개를 다루었다. 믿음은 회개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성화의 전 과정을 회개의 삶으로 규정하였다. 신자의 삶은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개혁하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루터도 일치 한다. 95개 반박문 제1 조항에서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참회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 병행된다. **따라서 성화 없이 칭의에 근거해서만 구원받지 못하듯이 행함, 즉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도 못한다**. 칼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칼빈은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없이 존재하는 칭의를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행함은 결코 칭의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칭의의 열매이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이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이다. 여기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종교개혁자의 구원론과 거리가 먼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 놓은 항상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곡해한 이단적인 발상이다**. 칼빈이 가장 혐오하며 경계했던 오류가 칭의 교리가 교회의 타락을 조장하는 방종의 라이선스로 해괴하게 변질되는 것이었다. 칼빈이 칭의론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주력했던 점이 이 교리가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그는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로 그런 오류를 원천에서 봉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것이 작금에 일어나는 칭의론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 근본원인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를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케 한 주범이 종교개혁의 칭의론인 양 말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론의 기본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분명한 반증이다. 그만큼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의 구원론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나와 같은 신학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왜곡된 구원론은 부실한 신학교육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